

■ 법률 칼럼

■ 교육

밀입국자의 영주권 신청

1. 601 A 면제를 통한 영주권 취득

현 이민법 아래에서는 이민과 세관을 거치지 않고 국경 등으로 밀입국을 하신 분들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또는 시민권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밀입국에 대해 불법성을 면제(601A)를 받아야 하고, 면제 후에 한국으로 출국하여 미국 해외 공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불법입국한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또 시민권자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도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90년 초에 개정된 현행 이민법은 신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 신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출국하게 되면 1년 이상 불법체류의 경우 10년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어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불법입국/불법체류의 불법성 면제를 통해 본국에서 영주권을 무사히 받고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주는 601A 면제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승인 요건

- 1) 이미 승인이 난 이민 청원서(Petition)가 있어야 이를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601A 면제 신청인에게 시민권자/영주권자 직계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 3) 601A 면제 신청인이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님이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게 되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미군 가족인 밀입국자의 영주권 신청(자녀나 배우자가 미군인 경우)

불법입국자라 하더라도 자녀나 배우자가 시민권자로 미군에 복무 중인 경우로 많은 분들이 위에 소개해드린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밀입국을 하신 분들 중에 자녀나 배우자가 미군에 복무 중인 신분들은 변호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umented: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미국 내에서 시민권 배우자나 자녀의 이민청원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입국자의 경우에는 이 I-94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601 A 면제를 통해서 밀입국의 불법성을 면제(10년/3년 입국 금지의 면제) 받은 다음 한국으로 돌아가 대사관 인터뷰(Consular Process)를 통해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밀입국한 분들의 시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 자녀가 미군에 복무하고 있거나 미군에서 명예제대를 한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그 배우자/자녀의 이민청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배우자/자녀 immediate family member)이 시민권자이고 미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것을 근거로 이민국에 Place in Parole을 신청하고 그것을 이민국이 승인해 주면 이민국이 꼭 미국에 새로 입국한 것처럼 새 I-94 입국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가지고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이민청원(Immigration Petition)을 통해서 한국으로 출국 없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는 밀입국자들 중에 시민권자 자녀가 미군에 복무 중인 경우로 많은 분들이 위에 소개해드린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밀입국을 하신 분들 중에 자녀나 배우자가 미군에 복무 중인 신분들은 변호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245(i)를 통한 밀입국자의 영주권 신청-

2001년 4월30일 전에 이민청원 (Labor Certification 포함)이 접수된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또 그 청원이 승인 가능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가족, 고용인 등이 영주권을 스폰서해 주는 경우에는 밀입국을 하셨더라도 벌금 1,000불만 내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6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수업시간에 '돌보이는' 학생이 되려면

교사가 인정하는 '최고'의 학생이 되려면 단지 교사의 말에 잘 따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입 컨설팅 전문기관 'Admission masters' (theadmissionmasters.com)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에 따르면 평소 교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소통을 더 잘하게 되고, 수업에서 교사의 강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교사에게 최고의 학생이 된다면, 대학 입시에 필요한 강력한 추천서(letter of recommendation)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사 추천서는 대입 성공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렇다면 수업 시간에 돌보이는 학생이 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먼저 교사가 믿을 수 있는 학생이 되는 것이다.

교사들의 입장에서 항상 규칙을 잘 따르기만 하는 학생이 가장 훌륭한 학생인 것은 아니다. 물론 규칙 준수는 학교 생활에서 기본이자 바탕이다. 수업 운영을 방해하면서 규칙에 순종하지 않는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전제 하에 지적인 호기심이 가득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학생의 경우 더 돌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학생은 교사로부터 특별한 신임을 얻게 된다.

만약 이런 적극성을 표현하기 어렵다면, 가장 단순하게 '신뢰를 주도록' 학교 생활을 하면 된다. 과제물을 제때 제출하고, 수업 시간에 늦지 않으며, 언제나 준비된 자세로 수업에 임하면서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행동한다면 교사에게 '믿음이 가지 않는' 학생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돌보이는 학생이 되기 위한 두 번째 팁

은 '팀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다.

가장 훌륭하게 운영되는 수업의 대부분은 마치 운동팀과 흡사하다. 다시 말해 교사는 운동팀의 코치와 같이 수업을 리드하고 모든 학생이 선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수년 전에는 수업의 모델이 일부 적극적인 학생들만 참여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관찰하기만 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요즘 많은 교사들은 훌륭한 팀 플레이어에게 점수를 준다. 수업을 경청하고, 수업의 토론에 의미 있게 기여하며, 수업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학생들이 바로 그들이다.

하지만 이상적인 팀 플레이어는 교사뿐만 아니라 수업을 같이 듣는 다른 학생들과도 유연하게 교류한다. 이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돌보이는 팀 플레이어는 '다른 학생들이 이 학생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서 나타난다.

세 번째는 지적인 호기심을 갖는 것이다.

학생들은 보통 '팀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교실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능력 있는 교사는 단지 가장 똑똑한 학생보다, 지적 호기심이 넘치는 학생을 더 높이 평가한다.

그럼 학생으로서 지적 호기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일반적으로 이것은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어떤 수업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할 마음이 없다면 짜증을 내기보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이 내용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뭘까? 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는 것일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말이다.

해당 수업의 내용과 자신의 관심사, 또는 인생 간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호기심을 자극해야 한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연체세금 해결

■ 법인설립

■ 세무감사대행

■ 해외자산보고

■ 상속, 증여세금보고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